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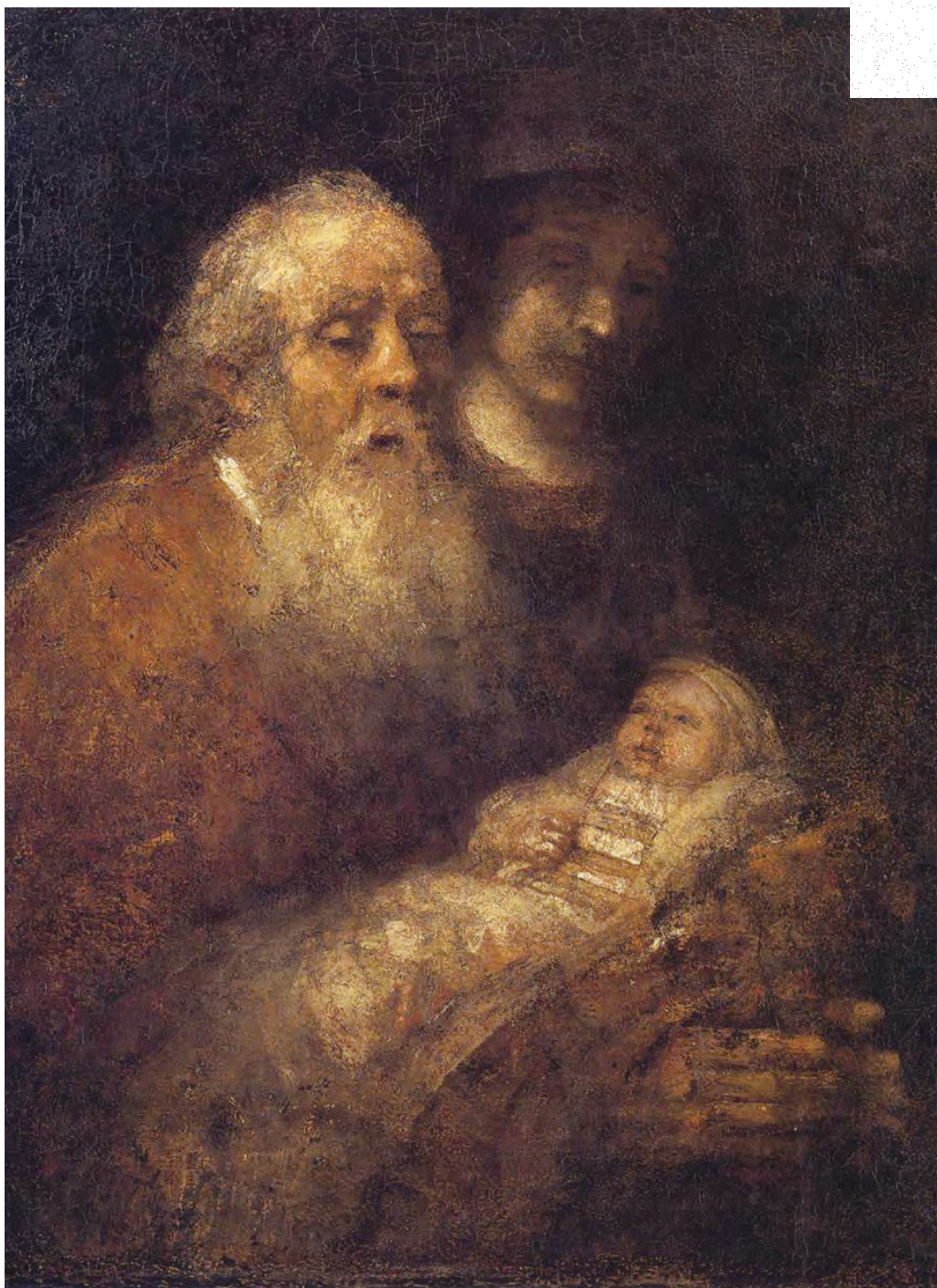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543호
2025년 2월 2일(다해)

주님 봉헌 축일
(축성 생활의 날)

성전 안의 시메온

렘브란트
(Rembrandt, 1606-1669)
1665-1669, 캔버스에 유채,
98.5x79.5cm
스웨덴 국립미술관, 스웨덴 스톡홀름



입당송 | 시편 48(47),10-11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제1독서 | 말라 3,1-4

화답송 | 시편 24(23),7.8.9.10(© 10ㄴㄷ)

◎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다.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다. ◎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

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다. ◎

제2독서 | 히브 2,14-18

복음환호송 | 루카 2,32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

복음 | 루카 2,22-40<또는 2,22-32>

영성체송 | 루카 2,30-31 참조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구원을 보았나이다.

그리스도께 불꽃을 댕겨 받자



이경상 바오로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우리는 주님 봉헌 축일, 빛의 축일을 지냅니다. 이날은 하느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고통이 깔린 우리 삶 한가운데에서도 용기를 내어 희망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되심은 희생을 통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축성되는 초는 이 헌신과 봉헌의 빛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제1독서 말라키서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말라키 예언자가 활동하던 때는 유배에서 돌아온 히브리인들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성전을 재건했으나, 우울과 절망 속에서 냉소주의와 불경이 자리 잡은 채 성전 중심의 영성이 쇠퇴한 시기였습니다. 말라키 예언자는 천주 성부께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맺도록 탁월한 계약의 사자(使者)를 보내 성전을 정화하실 거라 예언합니다. 후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말라키가 기다리던 이가 바로 나자렛 예수님이었음을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분은 실제로 성전에 봉헌되십니다. 하느님께서 백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노인 시메온은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고, 지극한 사랑의 전달자이신 그분의, 희생으로 점철된 인생을 예언합니다.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이 하느님을 심판하는 세상이기에,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심판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반대 받는 표징이 되어 성모님의 영혼이 꿰찔리는 상황이 전개되리라는 애깁니다. 이는, 인생에는 비극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마련이지만, 비극을 통과하면서 생의 성취도 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성모님의 일생에도 비극적인 요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인간은 그런 상처 때문에 오히려 연민과 이해가 깊어지면서 슬픔을 당하는 이들의 안위가 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권능이 작동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생을 상징하는 초, 특히 부활 성야의 부활초를 봉헌함으로써 몸소 빛으로 세상을 밝혀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천주 성부께로부터 오는 사랑의 불꽃을 피우기 위해 자신을 태우고 불사르셨듯이 우리도 그리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멸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됨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데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불꽃을 댕겨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빛을 발하는 삶이 되도록 아주 작은 마음가짐이나 행동에서부터 빛의 자녀다운 실천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슬픈 요소들을 넘어서서 나도 모르게 온 누리에 기쁨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드러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으니까요.



시메온과 한나

시메온과 한나는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일평생 기다린 노인입니다. 렘브란트는 화가로 일찌감치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금방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어리거나 장성한 자녀들과 사랑하는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며 외로운 노년을 지냅니다. 그렇지만 말년에 이르기까지 붓을 놓지 않았고, 늙은 자신과 부인을 닮은 이 그림을 유작으로 남겼습니다. 화가의 오랜 그리움은 평화로운 밤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도는 사그라지지 않고, 희망은 어둠으로 가리어지지 않습니다. 빛이신 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스며들 듯 오신 하느님



알베르토 몬디 | 방송인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한국에 산 지 올해로 18년 차 되는 ‘알베르토 몬디’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듯 이탈리아 국민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톨릭을 믿어 왔습니다. 여전히 한국 문화에 불교와 유교 문화가 남아있듯, 이탈리아 문화에는 가톨릭 문화가 짙게 묻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한국 가톨릭 신자분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알베르토 씨는 세례명이 뭐예요?”입니다.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세례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세례명이라는 것이 따로 없기 때문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대부분의 부모님은 성인(聖人) 이름 중에 하나를 정해서 이름으로 지어줍니다. 그러니 이탈리아 사람에게서는 이름이 곧 세례명이니, 따로 세례명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어느 성인이나고 물으신다면, 11월 15일이 축일인 주교이자 교회 학자 성 대 알베르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 사람은 대부분 가톨릭 성인 중에 이름을 정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한 반에 ‘알베르토’가 여러 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누군가를 부를 때, 이름이 아닌 성을 부릅니다. 한 예로,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탈리아 축구 중계를 보면, 선수 이름을 성으로 부르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름을 불렀다가는 누가 누구인지 헷갈릴 테니까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성으로 부르면 오히려 더 헷갈리겠지요?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은,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성당에서 지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일주일에 한 시간씩 가톨릭 과목이 있는 데다 방과 후에는 성당에서 하는 교리 교육이 있거든요. 둘 다 의무는 아니지만 친구들이 다 듣는 데다 늘 재미있는 놀이를 하기 때문에 안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에서

는 방학이 3개월이나 됩니다. 아무리 놀고 놀아도 시간이 남기 때문에 성당에서 하는 캠프라든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저 역시 청소년 시절의 추억은 전부 성당과 관련된 추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 활동이 직접적으로 ‘하느님’을 말하지 않고 그저 축구나 농구를 하는 거라고 해도 신부님과 함께하고, 성당이란 공간에서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하느님께 스며들게 됩니다. 그 기억이 참 좋아 지금도 어렸을 때 성당에서 함께 활동하던 신부님, 친구들과 연락하고 지낼 정도죠.

그리고 보면 저는, 스스로 ‘가톨릭 신자’라는 의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느님’께 스며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어른이 될 때까지는 이 사실이 그리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른이 되어 이렇게 타국에서 지내다 보니, 정말이지 축복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스며들 듯 저에게 오신 하느님께서는 제가 세상 어디에 있든 자연스럽게 저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하시니까요.

글구성 서희정 마리아작가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의 내일을 응원해 주세요



18살 지원이(가명)는 대학 생활을 꿈꾸던 평범한 고3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일상생활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미 오래 전에

이혼하셨기에, 지원이가 아픈 아버지의 간병과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지원이가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벅차, 병원 입원과 간병인 고용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원이는 대학 입학を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나 청년을 '가족돌봄청년' 또는 '영케어러'(이하 '가족돌봄청년')라고 합니다.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5~8%에 해당하는 약 18만 4천명에서 29만 5천명으로 추산되며, 2~30대 청년까지 더한다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군다나 저출산, 고령화로 돌봄과 부양을 분담할 수 있는 형제가 줄어들어 부담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고, 이혼율의 증가로 자녀가 아픈 부모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어 가족돌봄청년들의 현실이 이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틈나는 시간에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청소년, 청년들은 내일의 삶을 계획할 수조차 없습니다. 일하는 중에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불안하고, 열심히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는 비정규직 임금은 생활비는커녕 치료비로도 부족합니다. 학업을 이어 나가거나 진로를 탐색하고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 되었고, 누구보다 이르게 시작한 돌봄의 무게로 그들의 어깨는 너무도 무겁습니다. 누구라도 도와준다면 한시름 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몰라 지쳐만 갑니다.

1969년 김수환 추기경님은 청소년 수련회에서 한 소녀를 만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시는데, 아르바이트로 동생 뒷바라지까지 하는 소녀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며 추기경님께 위로의 말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장마에도 끝이 있고, 고생길에도 끝이 있단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간병, 삶의 고단함 속에서 이 한마디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이어가는 저희 '바보의나눔'도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따뜻한 나눔으로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2억 원의 기부금을 모아 76명의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였지만, 도움이 절실한 청소년과 청년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꼭 필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도, 의지할 곳도 없다고 생각했던 가족돌봄청년들 곁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2월 1일~28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재)바보의나눔' 후원 사업을 위해 씁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재)바보의나눔에서 발급합니다.

무통장입금 후,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입금자와 세액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이 일치하도록 입금 부탁드립니다, 입금일과 입금액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① 우측 QR코드 입력 ② 인터넷 신청: www.babo.or.kr/hand ③ 전화 신청: 02)727-2508 (재)바보의나눔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재)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의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의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2

단칼에 베어주게

복자 최필공 토마스 (1744-1801)

복자 김광옥 안드레아 (1741?-1801)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1760-1801)



정민 베르나르도 |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 첫 번째 칼이 목을 비껴가자 최필공 복자께서 흐르는 피를 움켜쥐고 '보배로운 피'라고 외치시는 장면 있다.(탁희성 화백, 절두산 순교성지 제공)

형장에서 망나니들은 사학 죄인의 목을 단번에 베지 않았습니다. 경험미 부족해 헛손질을 하거나, 형 집행에 당하는 죄수의 의연한 태도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세 번 이상 칼질이 더해지는 경우, 죄수에게 고통과 공포를 극대화시켜 가족이나 친지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계산된 행동도 있었습니다.

달래의 《한국천주교회사》에는 형장의 마지막 순교 장면들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1866년 병인박해 때 베르뇌 주교는 양팔을 뒤로 묶인 채 형장에 끌려왔습니다. 망나니 하나가 다가가 주교님의 양쪽 귀를 잡아 화살을 위에서 아래로 꿰뚫었습니다. 다른 망나니 들은 얼굴에 물을 뿌리고 그 위에 석회를 뿌립니다. 그러고는 몽둥이 두 개를 겨드랑이 밑에 끼어 광장을 몇 바퀴 돌며 조리돌림을 시키고는, 여섯 명의 망나니가 주교님의 둘레로 고함을 지르며 돌다가 죄수와 구경꾼의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칼을 내려칩니다.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일부러 빗맞춰 주교님의 머리는 세 번째 칼을 맞고서야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블뤼 주교의 참수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망나니

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뒤 칼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보수 금액을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주교님의 사지는 격렬한 고통에 경련을 일으키며 마구 뒤틀렸습니다. 흥정을 마치고도 주교님은 두 번의 칼질을 더 받고서야 목이 떨어졌습니다. 뿌떠니꼴라 신부는 세 번, 브르트리에르 신부와 볼리의 신부는 네 번의 칼질을 받고 나서야 머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초대 교회의 최필공 토마스는 첫 칼에 목이 반쯤 잘리자, 흥건한 피로 손을 적시며 '보혈!'이라고 외쳤고, 내포 사람 김광옥 안드레아는 형장으로 끌려갈 때 큰 소리로 목주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오늘 천주 곁으로 가서 끝없는 복락을 누리게 되었소."라며 기뻐했습니다. 망나니의 첫 칼날이 어깨를 빗겨 찌자 벌떡 일어난 그는 "조심해서 단칼에 잘라주게." 하며 마지막 칼날을 받았습니다.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천주를 우리러 죽겠다며 아예 하늘을 향해 누워 떨어지는 칼날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놀란 망나니가 벌벌 떠는 통에 첫 칼은 그의 목의 절반만 잘랐습니다.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난 정약종은 크게 성호를 긋더니 하늘을 보고 다시 누워 두 번째 칼날을 받았습니다. 최고 기록은 내포의 사도 이존창이 여섯 번의 칼날을 받은 것입니다. 며칠 뒤 그의 시신을 거둘 때 보니 머리는 어느새 목에 단단히 붙어 있었고, 흰 실날같은 흉터만 남아있었다고 하는군요.

"단칼에 베어주게! 천국으로 가겠네." 이 보혈이 산하를 적셔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우뚝 섰습니다. 어떤 신앙이었길래 여러 번의 칼질로도 그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을까요? 그 신앙의 터전 위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간절하고 의연합니까?

2025년 서울대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필리 2,5)

성 김대건 신부님
서품 180주년

부 제 품 | 2월 6일(목)
사 제 품 | 2월 7일(금)
오후 2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서품식 참석 안내

| 서품식장 내부 |

- 명동대성당 내부에는 **사제단 및 초대받은 입장권 소지자만** 입장 가능합니다.
- ※ 명동대성당 내부에서는 전례 중 개별 사진 촬영 및 휴대폰 사용이 불가합니다.
- 서품식을 진행하는 명동대성당이 협소한 관계로 대성전 내부가 아닌 프란치스코홀, 교스트홀, 영성센터, 가톨릭회관 및 교구청 건물을 **수품자 본당 좌석**으로 배정했습니다.
- ※ 각 본당 구역 입장은 본당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열 기구 및 LPG 가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실내 난방 가동)
- 행사 후, 반드시 **쓰레기**를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관련 |

- 행사 당일 **교우분들의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서품식은 가톨릭평화방송과 유튜브 cpbcTV에서 생중계합니다.

사제 수품자

서울대교구 25명 · 레뎀토리스 마떼르 1명



김동준(갈리스토)

성산동성당
2월 9일(주일) 오전 11시



최성훈(바오로)

목동성당
2월 9일(주일) 오전 10시



강명균(미카엘)

옥수동성당
2월 9일(주일) 오전 11시



최선광(마티아)

대방동성당
2월 9일(주일) 오전 11시



김재호(바오로)

수유동성당
2월 9일(주일) 오전 11시



구본정(바오로)

오류동성당
2월 9일(주일) 오전 11시



우희제(그레고리오)

응암동성당
2월 9일(주일) 오전 11시



박기벽(유스티노)

압구정동성당
2월 9일(주일) 오전 11시



장동우(아나시오)

중계양업성당
2월 9일(주일) 오전 11시



박정찬(알베르트)

역삼동성당
2월 9일(주일) 오전 11시



김지훈(스테파노)

양천성당
2월 9일(주일) 오전 11시



송상운(스테파노)

쑈고개성당
2월 9일(주일) 오전 11시



정현엽(베드로)

창4동성당
2월 9일(주일) 오전 11시



박성준(가브리엘)

성산동성당
2월 9일(주일) 오전 11시



이도영(바오로)

일원동성당
2월 9일(주일) 오전 10시 30분



류호준(안드레아)

삼성동성당
2월 9일(주일) 오전 11시



안환준(바오로)

목4동성당
2월 9일(주일) 오전 11시



오우석(스테파노)

신월동성당
2월 9일(주일) 오전 11시



정명균(비오)

신사베드로성당
2월 9일(주일) 오전 11시



김형섭(가브리엘)

신월동성당
2월 9일(주일) 오전 11시



김산(세례자 요한)

혜화동성당
2월 9일(주일) 오후 6시



최영환(세례자 요한)

신정3동성당
2월 9일(주일) 오전 11시



김용우(세례자 요한)

고덕동성당
2월 9일(주일) 오전 11시



최원영(스테파노)

신림성모성당
2월 9일(주일) 오전 11시



박재준(브루노)

양천성당
2월 8일(토) 오후 7시



후안 파블로(요한바오로)

레오포리스 마페르 선교 신학원
2월 8일(토) 오후 6시

부제 수품자

서울대교구 17명, 수도회 1명

이름	세례명	본당	이름	세례명	본당
전영제	프란치스코	성북동	노대철	대철 베드로	응암동
정석원	다니엘	세검정	주요한	사도 요한	논현동
조승래	세례자 요한	역삼동	이재현	임마누엘	마천동
박태동	요셉	마장동	권순호	비오	상도동
윤세진	미카엘	노량진동	안수호	막시모	대치2동
장인수	야고보	불광동	이재현	사도 요한	난곡동
김동욱	필립보	중계동	이충서	스테파노	용산
하두용	스테파노	중곡동	김민섭	미카엘	신월동
김경무	요한 마리아 비안네	거여동	이우철	도미니코 사비오	카푸친 작은 형제회

오늘(2월 2일)은 '주님 봉헌 축일'이며 '축성 생활의 날'입니다

축성 생활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www.cc.catholic.or.kr)-교회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12년 2월 3일 이영춘 세례자 요한 신부(52세)
- 2018년 2월 4일 김용화 바오로 신부(62세)
- 2019년 2월 5일 최영식 마티아 신부(72세)

교구청 알림

2025년 서울가톨릭스카우트 대원 및 대장 모집

모집대상: 스카우트 대원 활동에 관심있는 학생(6~18세) 및 대장 봉사에 관심있는 성인 / 문의: 02)762-9857
신청방법: <https://naver.me/G4Wp1fqS> 접속 후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2월 25일(화) 23시30분까지

직장사목팀 소방사목 안내

1) 가톨릭 소방공무원 <자기돌봄을 위한 1일 피정>

2) 큰사랑 봉사회 회원 모집

대상: 기도 생활과 봉사에 관심 있는 분

3) 가톨릭 의용소방대 모임

대상: 현재 활동중인 신자

문의(접수): 010-6234-6910 직장사목팀 큰사랑봉사회 총무

순교자현양 신심미사와 하루일정 전국순례 안내

1) 순교자현양 신심미사(344회)

때, 곳: 2월 4일(화) 오전 10시, 절두산순교성지

2) 하루일정 전국순례

때: 2월 15일(토), 2월 16일(주일), 2월 25일(화)

곳: 갑곶 순교성지, 진무영 순교성지,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 / 회비: 1인 6만원

신청: 2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선착순 접수

문의: 02)269-0413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2025년 '가톨릭 50+ 학교' 교육생 모집

대상: 50세 이상의 가톨릭 신자 / 곳: 교구청별관 523호
개강: 3월 20일(목)부터 / 종강: 6월 25일(수)까지
교육시간: 오전 10시30분~12시, 오후 14시~15시30분
개강미사: 3월 18일(화) 14시, 파밀리아채플

월	금씨학교	오후반 (2시간)	시니어를 위한 성경 퀵리그래피 교육
화	성경 봉독학교	오전반 오후반	전례 독서 및 성경 봉독, 스피치 교육
수	조부모 학교	과목1(오전) 과목2(오후)	손자녀에 대한 이해와 놀이·훈육·칭찬방법, 올바른 신앙전수법 교육
목	신약학교	1교시(오전) & 2교시(오후)	시니어를 위한 신약 성경 교육 및 성경 통독, 나눔
금	대화학교	오전반 오후반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위한 '사랑으로 듣고 말하기' 교육

문의: 02)727-2385, 6 / 학교 과목별로 신청가능
회비: 7만원~25만원(학교별 상이) / 신청기간: 2월 28일(금)까지(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목국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사목국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가톨릭학생회에서 뭐하니

친구들과 주도적으로 신앙을 찾아가는 단체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문의: 02)742-4151 서울대교구 학교사목부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현장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2월 13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당(교스트홀) / 집전: 임창재 신부(대만 선교)
문의: 02)727-2407, 2424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교황의 생명교설 / 강의방식: 온라인(Zoom)
대상: 생명에 관심있는 누구나 / 회비: 1만원
교육내용: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생명의 복음'
때: 2월 5일 · 12일 · 19일 · 26일 매주(수) 20시~21시 30분
문의(신청): 02)727-2351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025 신규약 성경통독 회원 모집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신규약 성경 전체
때, 곳: 매주(월) 13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 재방송 1개월 수강 가능)
이스라엘 요르단 순례파장: 11월 12일~21일(파장 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 010-8889-5425(문자)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1) 제52회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 전관

전시일정: 2월 14일(금)~23일(주일)

2) 2025 갤러리1898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 안내

공모 주제: 성미술 관련

접수기간: 3월 4일~14일

굿뉴스 및 인스타그램(@gallery1898) 참조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직장인	2월 9일(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2월 10일(월) 13시30분~16시30분

민족화해위원회

1) 화해·평화학교 수강생 모집

때: 3월 19일~5월 14일 매주(수) 19시(총 8주)

곳: 영성센터 203호(선착순 50명)

회비: 7만원(평화기행별도)

문의: 02)753-0815, 010-4682-2412(문자)

강	날	주제	강사
1강	3월 19일	[평화신학] 평화와 신학이 만나다	정수용 신부
2강	3월 26일	[북한정세] 북한, 아는 만큼 이해하기	이정철 교수
3강	4월 2일	[분단문화] 갈라진 한반도, 갈라진 마음	김성경 교수
선행	4월 11일~12일	[평화기행] 길에서 만나는 한반도 평화	정수용 신부
4강	4월 16일	[국제정세] 세계는 전쟁 중, 한반도 평화는?	백준기 교수
5강	4월 23일	[문화교류] 남과 북,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박계리 교수
6강	4월 30일	[북한교회] 평양에는 성당이 몇 개 있나요?	김연우 신부
7강	5월 7일	[종교교류]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장궁선 신부
8강	5월 14일	수료 미사	

2) 145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2월 4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복분당' : 함흥교구 회령 본당

문의: 02)727-2420

바르게 읽고 바르게 전달하기

굿뉴스 녹음봉사회에서 주관하는 전례 독서 낭독 교육

대상: 본당 전례단 단원 및 낭독에 관심 있는 교우

때: 3월 10일부터 매주(월) 오전 10시(2시간, 4주)

곳: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 문의: 02)2290-3138

접수방법: 굿뉴스(catholic.or.kr) 공지사항 참조

청년 환경모임

고통 받는 공동의 집 지구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들을 위해 실천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초대합니다

대상: 환경 파괴의 상황과 기후 위기의 시대에 함께 기도하고 행동할 청년(만 35세 이하)

때, 곳: 2월 8일(토) 16시, 가톨릭회관 613호(명동)

문의(신청): 02)727-2283, 2278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나눔 봉사자 교육

대상: 신임 예비 신자 교리 나눔 봉사자

교육기간: 3월 1일~5월 31일

교육방식: 온라인 교육(수강 방법 추후 안내)

회비: 6만원(2월 20일 접수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자세한 사항은 사목국 홈페이지 알림 · 공문 게시판 참조 / 문의: 02)727-2065 사목국 교육지원팀

'슬픔 속 희망찾기' 자살유가족 프로그램 안내

1) '슬픔 속 희망찾기' 2월 유가족 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곳: 2월 15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목구기도), 10시 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집전사제: 안동익 신부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2) '슬픔 속 희망찾기' 유가족 자조모임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

프로그램: 독서(대면 · 비대면), 아트테라피, 마음명상, 마음돌봄, 컬러링, 글쓰기 등 / 신청기한: 2월 28일까지

프로그램 시간: 홈페이지 참조(3079.or.kr)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전화 접수(02-727-2495)

총진행일정: 3월~12월까지(매월 1회 총 8회기 모임 예정)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5년 정기강좌와 성지순례

접수기간: 2월 3일(월)~3월 3일(월) /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접수: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접수 / 문의: 02)727-2379

1) 명동 오전 정기강좌(정기강좌 및 나눔터학교)

때, 곳: 3월 10일~6월 16일 매주(월) 10시30분~12시30분, 명동 교구청 내 강의실(15주 강의)

개강미사: 3월 10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회비(교재지급): 정기강좌8만원, 나눔터 7만원(강좌관련 홈페이지 참조)

2) 청년(일반), 직장인(1년) 성서못자리

때: 3월 5일~6월 11일 매주(수) 19시30분~21시(15주 강의)

개강미사: 3월 5일 19시30분, 명동 소성당

회비(교재지급): 청년 5만원, 직장인 8만원

3) 미주 온라인(zoom) 성서못자리 정기강좌(4관·동부·화요반)

수강기간: 3월 4일~6월 10일(매주 1회 60분 강의 / 한 학기 15회 수업) / 회비: 8만원(수수료 포함)

4) 제5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튀르키예-그리스 성지순례

때: 3월 24일~4월 4일(1박 12일) / 지도: 김상우 신부

주관: 성서못자리 / 문의: 010-6734-0190(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심 소화데레사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삼성산 성령 수녀회	수시	관악구 호암로 454-16(신림동)	010-3551-5877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매월 둘째주(주일)·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성심수녀회	2월 15일(토) 14시~17시	본원(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5696-2331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한국외방선교회	수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인준단체 알림

모임

평화의 모후 청년 셀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글라셋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2월 9일(주일) 11시~15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 010-9363-7784
 때, 곳: 2월 7일~10일·2월 21일~24일·3월 14일~17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명동3545+청년분과 음악 피정

음악으로 떠나는 사랑의 여정
 출연: 찬양크루 '열일곱이다' / 문의(접수): 인스타그램·구글이메일 @mdsd3545, 010-8798-7178
 때, 곳: 2월 22일(토) 16시~17시30분,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 대상: 35세~45세 청년 가톨릭 신자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 피정·2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1)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 피정

메주고리에 찬양기도, 성시간, 미사·안수(중식 무료)
 때: 2월 3일(월) 10시~16시

2) 2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때: 2월 8일(토) 12시~17시30분 / 미사·안수(중식 무료)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한라산 포함 2월 8일~10일·2월 14일~16일·2월 22일~24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3월 1일~4일·3월 9일~12일·4월 12일~15일·4월 27일~30일·5월 4일~7일·5월 26일~29일, 생태순례 3월 17일~19일·3월 22일~24일·3월 28일~30일, 4월 2일~4일(추)·4월 7일~9일·4월 22일~24일·5월 10일~12일 /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3월 1일~3일·3월 8일~10일·3월 13일~16일(추·자도)·3월 18일~20일·3월 23일~26일(추)·3월 29일~31일·4월 1일~3일·4월 5일~8일(추)·4월 10일~12일·4월 14일~16일·4월 25일~27일·4월 29일~5월 2일(추)·5월 4일~6일·5월 9일~11일·5월 13일~15일 /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성지순례·성 베네딕도 왜관 수도원 탐방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국내	3월 15일~18일(부산 8곳·마산 6곳), 4월 23일~27일(울릉도·독도), 5월 24일~26일(대구 17곳) / 출발: 가톨릭회관 후문
동유럽	5월 2일~15일, 체코·폴란드·메주고리에

3지구 매월 셋째주(수)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내용: 말씀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 점심 무료 제공
 강사: 양종석 신부(의정부교구 호평성당 주임)
 때, 곳: 2월 19일(수) 11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교육 회원 모집(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CaFF영화제작워크숍 13기 수강생 모집

때: 3월 5일~6월 11일 매주(수) 19시~21시20분 (15주) / 접수: 홈페이지(caff.kr/academy)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거룩한 예수님 수의와 함께하는 마르코복음

때: 3월 6일 개강, 매주(목) 10시~12시(미사 포함) / 회비 없음
 곳: 성 바오로 수도회(강북구 송중동) / 문의·강의: 010-6287-9753 김길수 수사(성바오로수도회 영성센터)

성분도 은혜의 뜰(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특강 및 프로그램 안내 / 문의: 02)318-2425
 네이버블로그 '성분도은혜의뜰' 참조
 곳: 전철 4호선 서울역 12번 출구 도보 10분 위치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 문의: 02)3276-7799

일상생활 속의 영신수련(영성·교리·신학 통합강좌와 영적수련) / 2월 28일까지 접수
 때, 곳: 3월 6일 개강, 첫째·셋째 격주(목) 19시~21시(8강), 비대면 온라인 / 담당: 권효섭 신부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나이 들,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히 살려는 프로그램 / 문의: 010-7451-9707
 대상: 60세 이상 / 회비: 100만원
 때, 곳: 3월 17일~26일·4월 21일~30일·5월 12일~21일·6월 9일~18일(10일), 강원도 홍천

예수회센터 불학기 강좌

3월 개강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kr)

(월) 예수회센터 월요 피정(무료)	최시영 신부
(화) 마태오의 예수이야기·토라, 계곡, 하느님의 나라	박상훈 신부
(화) 성경대학·사도시대 초대교회의 삶과 영성3	송봉모 신부
(수) 꿈·하느님의 귀한 선물	홍기령 교수
(수) 단테 '신곡' 지옥편·배신과 우정	김진춘 신부
(목) 구약성경 아카데미·창세기 해설	주원준 박사
(목) 영성과 심리의 통합 네번째 길	최지원 수녀

모집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혜화동 / 문의: 010-8932-0910
 지도: 강수근 신부 / 오디션곡: 가톨릭성가 중 1곡

미사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둘째주(토) 2월 8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727-2489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령과 가정을 위한 기도과 미사 / 02)3142-4434
 때, 곳: 2월 7일(금) 11시10분, 절두산순교성지

군중후원회 월례미사·특강

강사: 유한석 신부 / 문의: 02)776-0457
 때, 곳: 2월 3일(월) 14시, 국군중앙주교좌성당(전철 4호선 신원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뒤 왜고개성지 내)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열린미사

주례: 류선종 신부(골롬반회) / 문의: 02)953-0613
 때, 곳: 2월 15일(토) 16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 누구나 참석

안내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센터

성인 심리상담 및 검사, 아동 놀이치료
 곳: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서초구) / 회비: 실습생 1만원, 전문가(1급 8만원·2급 5만원, 놀이치료 6만원)
 문의: 02)3147-8814(gcounseling-center.catholic.ac.kr)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상담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대인관계, 부부, 유학생, 사별, 우울,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 / 문의: 010-9146-7654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여자 어르신 케어 요양보호사 / 문의: 010-7171-9503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직원 모집(경력)

분야: 영상PD, 라디오PD, 편집기자, 기자, OTT 운영, 카메라, 아카이브, 인사 / 문의: 02)2270-2225
 서류 접수: 2월 9일(주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입사지원 페이지(cpbcc.co.kr) 참조

서울대학교 내 박물관 학예집 모집

기관: 절두산순교성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분야: 학예연구사 각 1명 / 2월 7일(금)까지 이메일(museum@jeoldusan.or.kr, ssmshrine@naver.com) 접수
 서류: 절두산 및 서소문 홈페이지 참조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연락)

서울대학교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상시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나이제한 없음) / 이메일 문의
 업무: 주방 근무(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 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본 전형은 접수 마감시한이 따로 없는 연내 상시 접수이며, 채용계획이 있을 시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전형 진행 / 합격자 발표: 서류 합격(면접일정 통보), 면접 합격은 대상자에 한해서만 개별 연락

게재된
시간 검색

신간

희망하는 인간

슈테펜 케른 지음
바오로딸 | 280쪽 | 1만7천원
문의: 02)944-0994

이 책은 '희망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저자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다른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희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준다.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하는 우리 시대의 사회적 현상을 그리스도교 신앙에 비추어 보면서, 살아 계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영원을 향한 궁극적 희망을 지니도록 초대한다.



음악회

국립합창단 3.1절 기념음악회
거룩한 함성

때·곳: 2월 27일(목) 19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입장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1668-1352 예술의전당, 1544-1555 인터파크 티켓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2명 20% 할인

국립합창단이 3.1절을 기념하며 기념음악회 '거룩한 함성'을 무대에 올린다. 역사적 아픔을 견뎌낸 인물의 생애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을 예술로 승화시켜 깊은 감동과 공감을 선사한다. 우리 역사를 진솔하게 마주하게 하며, 여운을 남기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공모

2027 서울 WYD
주제가 공모

문의: 02)2270-2631 cpbc 가톨릭평화방송

다가오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대회 주

제가(작사+작곡)를 공모합니다. 전 세계의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우리의 노래를 기다립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서 청년들이 노래할 주제가 공모에 도전하세요!

공모 내용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의미와 주제를 담은 창작곡 (작사+작곡) 모든 장르 지원 가능

접수 일정 | 7월 1일(화)~8월 31일(주일)

공모 대상 | 국내외 모든 이들(종교, 지역, 국가 불문)

선정 기준 | 내용 뿐 아니라 예술성과 대중성, 여러 언어 번역 및 율동 창작 용이성, 가창의 수월성, 합창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작품 형태 | 작사와 작곡이 완성된 형태의 주제가, 참가자별 3곡까지 지원 가능

제출 파일 | ① 참가신청서(홈페이지에서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② 음원 파일(mp3 혹은 wav파일로 가이드보컬이 포함된 연주 파일), ③ 악보(가사 포함) (jpg 또는 pdf파일)

제출처 | thesong@wydseoul.org

심사 과정 | (1차 심사) 서류 및 음원 심사

(2차 심사) 대면 심사를 포함한 통합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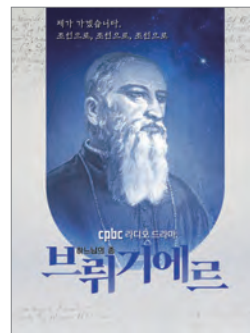
주최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역조직위원회

주관 | cpbc 가톨릭평화방송, 서울대교구 성음악위원회

문의 | 서울세계청년대회주제가공모담당자(thesong@wydseoul.org 2027)

카카오톡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TEIEMZg>

카카오톡 문의
오픈채팅 QR코드



라디오·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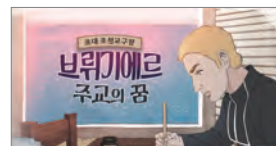
브뤼기에르 주교

- ① [cpbc 라디오 드라마] '하느님의 종 브뤼기에르'
- ② [애니메이션] 초대 조선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의 꿈
- ③ [특집다큐] '이제 우리가 갑니다' - 하느님의 종 브뤼기에르 주교

① [cpbc 라디오 드라마] 하느님의 종 브뤼기에르

브뤼기에르 주교님의 조선 선교를 향한 결단과 여정을 감동적인 오디오 드라마로 만난다. 전문 성우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편지와 기록 속 그의 이야기가 청취자들의 마음속에 살아난다.

② [애니메이션] 초대 조선교구장 - 브뤼기에르 주교의 꿈



조선교구의 초석을 놓은 브뤼기에르 주교님의 생애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었다. 그의 깊은 신앙과 헌신을 담은 이 작품은 본당 교육이나 강론에도 활용할 수 있다.

③ [특집다큐] '이제 우리가 갑니다' - 하느님의 종 브뤼기에르 주교



브뤼기에르 주교님의 어린 시절부터 선교를 향한 소명, 그리고 그의 헌신을 기억하는 후손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이 다큐를 통해 주교님의 깊은 영성과 하느님께 대한 사랑, 그가 남긴 신앙의 길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cpbc플러스
QR코드

